새국어생활 문화 인물을 통해서 본 국어학사의 현재와 미래

이상혁 ·한성대학교 교양학과 교수

Ⅰ. 들어가며

1984년 5월 10일 문교부 산하의 국어연구소로 출발한 국립국어원은 1990년 1월 3일 문화부로 이전한 후, 1990년 11월 14일 대통령령 제13,163호에 따라 국립국어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2004년 11월 11일 대통령령 제18588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에 의해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그동안 여러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계간으로 펴내는 《새국어생활》은 국어 관련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우리말과 글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소개하면서 언어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새국어생활》 창간 초기부터 2002년에 이르기까지 특집의 형식으로 매년 가을호에 국어 관련 문화 인물을 선정하여 그 인물의 생애, 언어관, 그리고 학문적 업적 등을 소개하고 새롭게 조명한 코너는 국어학사를 인물 중심으로 살펴본 좋은 기획 의도라 할 만하다. 필자 역시 인물

중심의 국어학사에 대한 논의가 전문적이든 대중적이든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획 특집은 더욱더 반가운 일이었다. 또한 이러한 시도가 1990년 이전에 국어연구소에서 발행한 《국어생활》에서는[1] 다루지 않았던 주제라는[2] 점에서도 기획 의도에 대한 참신성은 빛났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새국어생활》에서 그동안 다루어 왔던 문화 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과 흐름을 되돌아보고, 아울러 앞으로 《새국어생활》이 지향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회고와 전망이라는 큰 틀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Ⅱ. ≪새국어생활≫ 문화 인물에 대한 회고와 제언

1. 《새국어생활》 20년 속의 문화 인물 조명 10년

1.1. 《새국어생활》에 소개된 10인의 문화 인물

《새국어생활》 20년 역사에서 문화 인물에 대한 조명은 10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글날이 10월 9일이기 때문에 계간지의 성격상 가을호 특집으로 문화 인물을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소개된 문화 인물은 매년 한 명씩 총 10명이었다. 아래 정리한 표를 보면 문화 인물로 선정돼 해마다 조명된 연구자들과 그 소개 내용을 알 수 있다.

---

1) ≪국어생활≫은 1984년을 시작으로 1990년 23호까지 발행된 ≪새국어생활≫의 전신 잡지이다.

2) ≪국어생활≫ 2호에서 "고 김성배 박사의 생애와 업적"(진태하)을 다룬 글이 있으나,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편집부의 의도적인 기획의 산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	문화 인물	소 개 내 용
1993	최현배	외솔 선생의 학문, '우리말본'의 소리갈, 씨갈, 월갈, '한글갈'의 훈민정음, 문헌 연구, 언어정책론
1994	이희승	생애와 학문, 한글 맞춤법, '국어대사전' 편찬, 일석 문법의 두 과제, 고전 문학 연구, 절조와 정서의 문법, 조선어학회 사건의 실상, 사회 활동
1995	김윤경	조선문자 급 어학사, 문법론, 김윤경 선생의 일생
1996	정인승	생애와 학문, 품사론과 문장론 연구, 조어론, '의문·해설 한글 강화', 사전 편찬
1997	장지영	생애와 학문, 문법 연구와 우리 어문관, 이두 연구, 고전 문학 연구, 민족 운동, 교육 활동
1998	정태진	생애와 학문, 문법, 방언 연구, 옛말 연구, 조선어학회 사건, 사전 편찬
1999	최세진	생애와 업적, <훈몽자회>와 한글 맞춤법, 번역 활동, 음운 연구, 저서 해설
2000	유희	학문과 생애, '언문지'에 나타난 국어 음운 연구, <물명유고>의 이본과 국어학적 특징, <물명유고>의 생물학적 연구, <태교신기>, 유희의 傳記 및 柑製 試券
2001	설총	국어, 차자표기법, 고대 삼국의 언어 표기관, 고대의 '방언'과 그 유사 지칭어, 신라 유학과 설총의 학문
2002	신숙주	생애와 학문, 훈민정음, 운서, 문학과 사상, 집현전 학자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새국어생활》의 문화 인물은 크게 고대의 설총, 중세의 신숙주와 최세진, 실학 시대의 유희를 다루었고, 나머지는 20세기에 국어학 활동을 한 연구자인 정태진, 장지영, 정인승, 김윤경, 이희승, 최현배 등의 6명이다. 근대 계몽기의 연구자들은 한 명도 다뤄지지 않았다. 대체로 현대 국어학 연구자에 집중된 국어학 문화 인물에 대한 조명이었다. 전통 국어학 시기(20세기 이전)에는 연구자들이 많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서양식 학문 체계로서 국어학이 확립되는 20세기 이후의 연구자들 중심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6명은 현대 국어학 1세대에 해당하는 학자들로서 모두 일제 시대에

조선어학회 사건 관련자들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일제에 빼앗긴 고통의 시대에 국어 운동이 곧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사명감에 자신을 희생한 분들로서 《새국어생활》 문화 인물로 당연히 다뤄질 수 있었던 선각자들이었다. 아쉬운 것은 조선어학회 사건 관련자 중에서 해방 이후 북쪽에서 활동한 연구자들이 빠져 있고 주시경에 대한 조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1.2. 《새국어생활》 문화 인물 조명의 성과와 한계

문화 인물을 조명하면서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각 연구자들의 생애와 업적(학문)을 공통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국어학사의 관점에서 무릇 문화 인물에 대한 생애와 그 업적을 다루는 것은 기본이다. 다만 《새국어생활》에서 특집이라는 코너로 연속적으로 각 인물들을 조명하면서 소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차와 형식의 일관성이 다소 미흡한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추가로 각 연구자들의 거시적인 국어관(언어관)을 공통의 목차 내지는 형식으로 갖춰 함께 내용을 구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각 문화 인물에 대한 후손이나 후학의 추모와 에세이, 연보와 연구 목록 등도 일관된 형식으로 제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태진, 장지영, 정인승, 이희승, 최현배 등 5명에 대한 추모 및 회고의 글과 연보 및 연구 목록만이 제시돼 있고, 그 형식도 각 문화 인물별로 상이하다. 좀더 일관되었더라면 《새국어생활》을 읽는 일반인들에게도 한층 더 읽는 즐거움과 흥미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새국어생활》에서 문화 인물을 조명한 것이 20년 동안에 매년 가을호 특집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나, 2002년 가을호 이후에는 문화 인물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다. 국어학 및 국어 정책 관련 다른 주제들도

특집의 내용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편집 방향도 이해할 수는 있으나, 최근 10년간의 단절이 아쉬운 대목이다. 《새국어생활》에서 국어학 관련 문화 인물을 조명하는 코너를 기획할 초창기에 특집이 아니라 상설 코너로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더 의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어학의 학문 발전이 계속되는 한 역대 연구자들에 대한 조명은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2. 《새국어생활》 20년을 딛고서

《국어생활》의 시대를 거쳐 《새국어생활》 20년의 성과 중에서 국어학 관련 문화 인물에 대한 소개는 시의적절한 성과와 내용을 구성하였지만, 반쪽의 성과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새국어생활》이 더욱더 발전하는데 있어 몇 가지 문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1. 각 시대별 문화 인물의 조명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 인물에 대한 조명이 주로 현대 국어학 연구자에 편중된 양상이었다. 현대 국어학 시대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대의 연구자들에 대한 조명 빈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와 아울러 훈민정음 이전 시대 및 훈민정음 시대와 실학 시대라는 전통적 국어학 시대와 전통과 현대의 중간 지점에 있는 근대 계몽기 시대의 문화 인물에 대한 발굴과 소개가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

고대와 중세 전기(고려 시대)에 국어학 관련 문화 인물이 극소수이긴 하나, 김대문과 최치원, 최행귀와 같은 학자들은 《새국어생활》 문화 인

물로 조명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국어학이 분화되기 전의 연구자들이기는 하나, 그들이 품었던 언어 의식 전반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국어학사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훈민정음이 창제된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파의 일부 인물들에 대한 조명도 필요하다. 세종대왕에 대한 소개와 평가는 이미 학계에서 차고 넘친다. 그러나 《새국어생활》 일반인 독자를 위한 차원에서 세종대왕은 물론이려니와 훈민정음의 사람들로 알려진 성삼문, 최항, 정인지 등도 단순히 국어학사적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학계의 시각도 함께 아우르는 편집 방향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이들 역시 훈민정음 시대의 소중한 문화 인물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실학 시대에도 새로운 생각과 언어관으로 우리말과 글에 대한 고민을 한 문화 인물들이 꽤 보인다. 《새국어생활》에서는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유희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그러나 최석정, 박두세, 박성원, 홍계희, 이사질, 신경준, 홍양호, 황윤석, 정동유, 박경가, 석범, 강위, 이의봉, 정약용 등에 이르기까지 훈민정음, 운서 및 문자 음운학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연구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물론 이들은 현대적 의미에서 국어학자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겠으나, 그 연구자들의 생애, 언어관, 저서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실학 시대 국어학사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중적인 소개가 향후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새국어생활》에서는 근대 계몽기 연구자에 대한 국어학사적 조명이 전무하다. 근대 계몽기는 문자나 운서 중심의 전통 국어학을 넘어 학문(과학)으로서 국어학의 체계가 확립된 초창기로서 주목을 받는 시기다. 전근대와 근대의 교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기에는 권정선, 이봉운, 지석영, 유길준, 김규식, 김희상, 주시경과 같은 연구자들의 다양한 언어관과 학문적 업적이 눈에 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국어학사적 접근 역시 향후 《새국어생활》에서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시경과 같이 국어학에 선구적 역할을 한 연구자를 《새국어생활》에서 한번도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의외다. 《새국어생활》이 발행되던 지난 80년대 말 이후 주시경 연구소 《주시경학보》의 발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주시경의 학문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이루어진 바가 있긴 하나, 그것은 엄연히 연구자 중심의 학문 잡지가 지향한 독립된 활동이었다. 연구자와 일반인이 두루 읽고 있는 《새국어생활》에서는 보다 대중적 차원에서 주시경에 대하여 전면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일제 시대 이후 현대 국어학 시기가 도래하면서 우리 국어학계는 풍성한 학문적 업적이 많이 양산되었다. 서양의 언어학적 학문 전통과 일본의 영향 등을 통해서 문법서와 기타 개인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강매, 남궁억, 이규영, 김두봉, 안확, 박승빈, 권덕규, 이상춘, 양주동, 문세영, 유창선, 방종현, 심의린, 김선기, 이숭녕, 김형규, 이인모 등의 다양한 학자들이 우리말과 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결과물을 만들어 낸 이 시기에는 연구자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새국어생활》에서 다룬 이 시대의 문화 인물들은 그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조선어학회 사건 관련 문화 인물에만 집중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어학회 사건과 관련된 연구자들을 모두 다룬 것은 아니다. 이중화, 이극로, 한징, 이윤재, 권승욱, 이석린과 같은 국어학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국어학자는 아니었지만, 김법린, 이우식, 김양수, 김도연, 이인 등도 그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후자의 인물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조선어학회 사건 관련자들 중에서 그동안 다루지 않은 국어학자들을 순차적으로 조명하는 것도 《새국어생활》의 향후 몫이다.

또한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에 관여한 인물들 중에서 위에서 중복되는 연구자들을 제외하고 신명균, 이병기, 정인섭과 같은 인물들도 문화 인물로 다룰 수 있을 것이고 일제 시대에 빛을 보지 못하고 해방 후에 1차 간행된 《큰사전》 편찬에 관여한 연구자들에 대한 조명도 의미 있는

기획이 될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 주류는 아니었지만, 박승빈을 중심으로 한 조선어학연구회 소속 연구자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 절에서는 결국 시대별 안배를 통해서 문화 인물에 대하여 《새국어생활》의 적극적 편집 기획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미 조명된 인물들은 이미 학계에서도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은 분들이지만, 필자에게는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소개될 필요가 있는 국어학 관련 연구자들을 시대별로 선정해 새롭게 문화 인물로 조명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2. 주제별 문화 인물의 조명 필요성

시대별 문화 인물에 대한 새로운 소개와 별도로 특정한 문화 인물이 선정돼 소개될 때는 몇 가지 기본적 내용을 균질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 인물에 대한 소개 형식과 내용이 질서 없이 배치되고 채워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새국어생활》에서 문화 인물을 기획하고 소개한다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항목 형식을 제안하면서 그 내용을 구성했으면 한다.

1. 문화 인물의 생애와 업적 개관
2. 문화 인물의 거시적 언어관
3. 문화 인물의 학문적·이론적 업적 분야별 소개
4. 문화 인물의 실천적 활동
5. 문화 인물의 국어학사상의 위치와 학문적 계보
6. 문화 인물에 대한 후손 및 후학의 회고

《새국어생활》은 전문지이면서 대중지이다. 연구자들과 일반인 모두

에게 충족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목표였고 향후 목표이어야 한다. 따라서 독자를 고려한 계간 잡지가 되어야 한다면 문화 인물에 대한 조명도 그 목적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거시적 언어관, 학문적·이론적 업적에 대한 분야별 소개, 국어학사상의 위치와 학문적 계보 등은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콘텐츠에 해당한다. 그 반면에 문화 인물에 대한 생애와 업적 개관, 실천적 활동, 후손 및 후학의 회고 등은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콘텐츠이다. 따라서 이 두 부류의 독자를 고려한 문화 인물에 대한 조명을 좀더 질서 있게 균질화하는 것도 향후 《새국어생활》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3. 남북과 국적을 초월한 문화 인물 조명의 필요성

국립국어원의 중요한 실천 과제 중의 하나는 남북 언어 통합이다. 그동안 학계뿐만이 아니라 국어원 역시 남북 언어 통합 연구 및 실천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은 문화 인물에 대한 국어학사적 평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국어생활》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북쪽 국어학자에 대한 조명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가 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남북 통합의 문제에서 언어 분야만큼 상대적으로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북쪽의 국어학자에 대한 조명을 통해서 통일 국어학사를 위한 국어원의 적극적 모색을 부탁하고자 한다.

주시경의 제자 김두봉, 조선어학회 사건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초기 국어 음성학 연구에 기여한 이극로, 자신만의 독특한 문법관을 가지고 있었던 정렬모, 시대를 앞서간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유응호, 조선학(국학)의 선구자 중의 한 사람이자 《훈민정음 해례본》 최초 번역자 홍기문,

그밖에 김수경, 전몽수, 류렬, 김병제 등은 일제 시대뿐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 국어학계에 기여한 소중한 문화 인물들이다.

북쪽 정권이 수립되고 남이 아닌 북을 선택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남긴 업적은 소홀히 할 수 없다. 다소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더라도 그들의 언어관과 실천적 활동 역시 후학이나 일반인들에게 계몽적 측면에서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한이 분단되고 학문적 교류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고 미래를 위한 국어학사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서 우리는 북쪽에서 국어학 연구에 매진한 그들을 버릴 수 없다.

한편 외국인이지만 우리 국어학계에 기여한 문화 인물들에 대한 배려도 적극적으로 《새국어생활》에서 모색해 보아야 한다. 근대 계몽기 이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국어학사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제는 선행되어야 한다. 서양 선교사들의 초기 문법 의식과 언어관, 그리고 오쿠라 신베이 등을 중심으로 현대 국어학 초기에 영향을 준 일본인들의 학문적 업적과 관련하여 그들이 어떻게 어떤 내용을 우리 국어학계에 결과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제 시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연관된 그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국어학적 견해와 그들의 실체를 균형감 있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문화 인물로서 북쪽 국어학자에 대한 소개와 외국인 국어학 관련 연구자들에 대한 조명은 우리 국어학계가 앞으로 가야할 길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새국어생활》을 통해서 밝힘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 국어학계의 논의가 다양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일반인들에게도 이해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Ⅲ. 마치며

《새국어생활》의 독자층을 확대하고, 국어 정책의 건강한 미래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문화 인물을 좀더 폭넓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어느 학문 분야나 마찬가지로 그 분야를 선도하는 주류가 있는가 하면 주류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는 비주류는 존재한다. 국어학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국어생활》에서 향후 문화 인물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다시 시도한다면 이런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대별, 주제별, 그리고 인물별 문화 인물에 대한 총체적 선정과 고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대한국문법대계》에서 다루어진 국어학 연구자들에 대한 접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근대 계몽기 이후 거의 모든 문법가들의 성과를 잘 묶어낸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병행해서 국어학자가 아니었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에 기여한 국문학자, 인문학자, 그리고 북쪽으로 간 사람들, 외국인, 심지어 재야 국어학 관련 연구자들에 대한 고려와 선택도 문화 인물 소개에서 과감할 필요가 있다.

문화 인물로 바라본 국어학사는 인물의 생애, 학문적 업적, 의식과 실천의 조응 등에 대한 평가 등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의의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새국어생활》은 학문적 치우침 없이 앞으로 그러한 의식과 태도로 많은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할 의무도 있다. 그것이 《새국어생활》이 가야할 길이다. 지난 20년간 《새국어생활》에서 문화 인물을 통해서 본 국어학사적 접근은 절반의 성공이다. 나머지 절반은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에 주목하여 《새국어생활》 편집진이 채워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국어생활》의 문화 인물을 통해서 본 국어학사의 지난 20년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었고 노

정의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고영근(1985), 《국어학 연구사》, 서울:학연사.

고영근(1994), 《통일시대의 語文問題》, 도서출판 길벗.

金敏洙(1980), 《新國語學史(全訂版)》, 서울: 一潮閣.

김민수 · 하동호 · 고영근 공편(1986), 《역대한국문법대계 총색인》, 서울:탑출판사.

이상혁(2007), 국어학사를 다시 생각함, 《한성어문학》 26집.

이상혁(2007), 해방 후 초기 북쪽 국어학 연구의 경향, 《어문논집》(고려대) 56호.

정광 외(1997), 《국어학사》, 서울: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정광(2006), 《훈민정음의 사람들》, 서울:제이앤씨.

최경봉(2005), 《우리말의 탄생》, 서울:책과함께.